



# 광남일보



조건 제 8059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음력 2월 19일)

## 민형배·김영록...민주 통합시장 끝장 승부 펼친다

### 6·3지방선거 D-58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이 민형배 후보와 김영록 후보(기호순)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다만 두 후보 모두 50%가 넘는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오는 12~14일 결선에서 6·3 지방선거에 나갈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됐다. ▶관련기사 3·9면

이에 따라 탈락 후보 지지층의 표심 이동, 권역별 민심, 조직력 등이 막판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신정훈 후보는 3위에 그쳐 탈락했다.

당규에 따라 세 후보자의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본경선은 지난 권리당원 투표(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통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졌다.

지난달부터 모두 8명의 후보가 참여한 이번 경선은 중도 포기와 지난달 20일 예비경선(권리당원 100% 투표)을 거치면서 5명의 후보(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기호순)로 압축됐다.

이날 본경선 결과 발표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난 주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통해 형성된 합종연횡의 영향력이었다.



민형배



김영록

### 본경선 결과 과반득표 없어 상위 2명 결선행 신정훈 '고배'...12~14일 사흘간 '진검 승부' 탈락 후보 지지층·권역별 표심 흡수 등 변수

민형배 후보는 주철현 의원의, 신정훈 후보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각각 단일화했다.

김영록 후보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이개호 의원 등 지역 원로와 중진 그룹의 스크럼을 짰다.

이날 본경선 결과는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기존 여론조사 추이와 큰 차가 없었다. 공을 들인 단일화나 연대가 충분한 효과를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표심 변화와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네거티브 이슈도 본경선 관련 포인트 중 하나였다. 권리당원 규모를 비교해보면 전남(22만 명)이 광주(11만 명)

보다 훨씬 두텁다. 또 전남의 경우 서부권보다 동부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후보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권역별 표심을 고려한 공약 발표나 단일화로 인한 상대 후보 지지층 흡수를 기대했지만, 표심 이동이 눈에 띄게 드러날 만한 변화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문제, 천명 경쟁, 후보 정체성 공방 등 네거티브 이슈도 보다 세밀한 조사가 뒤따라지 않는다면 어떤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기 어렵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벚꽃길 산책하는 시민들 5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근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벚꽃은 대표적인 봄꽃으로 남부 지역은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중부 지역은 4월 초중순에 절정을 이룬다. 벚꽃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중국, 유럽, 캐나다, 미국 등 북반구 온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꽃이 아름다워 관광용으로 많이 심는다. 벚꽃이 피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축제 등을 통해 벚꽃을 즐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중동 여파에 원자재값 급등...인쇄 업계 '직격탄'

잉크·종이 최대 30% 인상 압박에도 납품 단가 반영 못해  
지선 특수 기대감도 '흔들'...물량 감소·수익성 악화 우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광주지역 인쇄·현수막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종이와 잉크, 현수막 원단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지만, 기존 납품 단가에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7·19면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이와 잉크, 나프타 기반 원단 가격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통보가 이어지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잉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

를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광주 동구 인쇄의 거리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한 업체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자재값이 꾸준히 올랐지만 올해는 인상 폭이 훨씬 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 물량을 대비해 미리 확보하려 해도 보관 공간과 비용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쇄용품 비축으로 4월까지의 버틸 수 있지만, 물량이 소진되면 지금과 같은 영업은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인쇄용 잉크는 1kg당 7000~9000원 수준이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

이 거론된다. 종이값 역시 크게 올라 B2 용지 1000매 기준 가격이 과거 6만원대에서 최근 9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입찰로 체결된 계약은 단가 조정이 어려워 업체들이 비용 상승분을 떠안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납품 단가를 올리면 거래가 끊길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실상 선택지가 없다. 발주처를 찾아가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사정해 봐야겠다"고 토로했다.

현수막 제작 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구의 한 업체는 최근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최대 30% 가격 인상을 계획해 통보받았다. 현수막 원단 역시 석유화학 제품으로 유가 상승과 공급 불안의 영향을 받고 있다. ▶2면서 계속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 첫 여성 구청장' 신수정·정다운 격돌

민주, 8~10일 국민참여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청장 후보를 가리는 결선이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진다.

5일 민주당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북구청장 경선 투표 결과 신수정·정다운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광주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신수정

후보는 구의원 3선·시의원 재선 경험을 앞세워 경제 중심지 광주역 완성, 서방천 생태 하천 복원 등을 공약했다.

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을 사퇴한 정다운 후보는 관료 중심 '복지부동' 구정 운영을 지적하면서 숙원사업 우선 해소, 자영업자 반값 임대료 등을 약속했다. 지역 내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는 만큼 광주지역 최초 여성 구청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수정



정다운

광주에서는 지난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구청장이 배출된 적이 없다. 민주당은 8~10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최종 북구청장 후보를 가린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더 당당한 자치! 더 거대한 경제! 더 특별한 내일!  
행복한 동행의 시작

